

# <2015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 결과 보고서

2015년 8월 25일(화)

## □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트레이닝 캠프> 개요

- 일시: 2015년 8월 7일(금) ~ 10일(월)
- 장소: 서울대학교
- 주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체육교육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후원: 서울특별시
- 대상: 초등학교 교사, 대학/대학원생, 연구자, 평화활동가 등 60여명
- 강사진

### (1) UK 코치진

- Graham Spacey (국제평화축구 프로그램 총책임)
- Tim Cetinich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Laurence Curtis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Jessica Foster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Connie Lewin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Megan Nelson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Claire Rea (국제평화축구 북아일랜드 코치)
- Bronte Senior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Dominic Smith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Sammy Tinsley (국제평화축구 잉글랜드 코치)

### (2) 한국 강사진

- 나영일 교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 이찬수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정용철 교수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보근 기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화연구소장)

### ○ 목표

- 지역 사회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 평화교육 소개
- 역량 있는 평화교육자(교사)를 양성하여 우리 사회 평화교육 발전 및 평화교육 확산에 기여
- \* 10일(DMZ 평화투어)를 제외한 전체 프로그램의 90% 이상에 참여한 수강생에 대해 국제평화축구 1급 코치자격증 수여

## □ 사업 배경

- 최근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평화교육이 화두로 떠오름. 그러나 아직까지 평화교육

은 또래 간 갈등 해결, 통일, 세계시민교육 등 단편적인 주제로 1시간 미만의 강의 식 교육이 주를 이룸.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직접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수업이 개발돼야 하며, 아이들의 행동변화를 위해 최소한의 교육 시간이 확보돼야 함

- 외국에서는 스포츠를 접목한 평화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 중 영국 브라이튼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 UK) 등이 시작한 국제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International, 이하 F4P)가 대표적임. F4P는 축구 및 체육활동을 매개로 어린이들이 공평과 포용, 신뢰, 존중, 책임이라는 평화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 툴(Tools)로 구성됨
-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역량 있는 평화교육자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필수적임. 브라이튼대학의 경우, 재학생, 지역 교사, 평화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F4P 코치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F4P의 공교육으로의 확대 및 지역/해외 프로그램 활동가를 양성을 도모함

**“축구를 통해 평화를 배우다”: 국제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International)**

- **국제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International, 이하 F4P)**
  - F4P는 영국 브라이튼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 독일 쾰른스포츠대학교(Deutsche Sporthochschule),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축구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문화를 확산하고자 2001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초기 사업은 이스라엘의 아랍 및 유대인 어린이들 간의 갈등 예방과 평화 공존 교육으로 시작됨
  - 현재, 잉글랜드는 물론,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잠비아, 체코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하는 F4P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브라이튼대학교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월 F4P와 협약을 맺고 F4P Korea의 자격을 얻음
- F4P는 1) 올바른 시민의식과 가치관을 키우고, 2) 지역 사회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하며, 3)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4)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며, 5) 축구 실력과 그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함
- F4P가 가르치는 평화 가치
  - **공평과 포용(Equity and Inclusion)**: 모든 참가자들은 성별, 배경, 종교, 능력 등에 상관 없이 서로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포용함
  - **신뢰(Trust)**: 사회적 다양성, 각자의 개성,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음
  - **존중(Respect)**: 자기 자신, 자신의 팀과 상대팀, 코치와 부모님, 경기 규칙,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을 존중함
  - **책임감(Responsibility)**: 다른 이들과 함께, 또 다른 이들을 위해 행동하는 방법을 배움. 서로 도우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배움
- F4P 프로그램은 위 가치들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과 툴(tool)로 구성됨

□ 프로그램 및 주요 진행 내용

	8/7(금)			8/8(토)			8/9(일)	8/10(월)
	A조	B조	C조	A조	B조	C조		
08:30~9:00	회의/준비 (UK 코치진, 우리민족 Staff) @강의실 301호							
09:00~9:30	등록 • 매뉴얼 등 배부 @강의실 301호			On-pitch Football A조 @운동장	On-pitch Football B조 @운동장	On-pitch Football C조 @운동장	페스티벌 참가 어린이 환영 아이스 브레이킹 (조별 진행) @체육관	서울대-파주 이동
09:30~10:00	개회식 • 주최측/F4P 인사말, OT @강의실 301호							
10:00~10:30	한반도, 그리고 평화교육 (이찬수 교수) @강의실 301호			Off-Pitch 실습 Alternative Activities 실습 @운동장	Off-Pitch 실습 Alternative Activities 실습 @운동장	Off-Pitch 실습 Alternative Activities 실습 @운동장	페스티벌: 코칭 실습 On/Off-pitch 실습 (조별 진행) @체육관	임진강역 시비 (詩碑)
10:30~11:00								
11:00~11:30	F4P 철학/목표/가치 (Sammy, Clair, Laurence, 예정) @강의실 301호			점심 식사 @동원관 2층 식당	점심 식사 @동원관 2층 식당	점심 식사 @동원관 2층 식당		태풍 전망대
11:30~12:00								
12:00~12:30	점심 식사 @동원관 2층 식당			점심 식사 @동원관 2층 식당	점심 식사 @동원관 2층 식당	점심 식사 @동원관 2층 식당		
12:30~13:00								
13:00~13:30	조편성 및 미팅 @체육관			스포츠와 평화교육 (나영일 교수) @강의실 301호	스포츠와 평화교육 (나영일 교수) @강의실 301호	스포츠와 평화교육 (나영일 교수) @강의실 301호	페스티벌: 축구 토너먼트 *승패점수+상대 태도점수 @운동장	적군묘
13:30~14:00								
14:00~14:30	Off-Pitch 실습 Alternative Activities 실습 @체육관			갈등해결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 (Clair, Graham) @강의실 301호	갈등해결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 (Clair, Graham) @강의실 301호	갈등해결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 (Clair, Graham) @강의실 301호	페스티벌 폐막, 단체 사진 @운동장	점심식사 (해마루촌)
14:30~15:00								
15:00~15:30	On-pitch Football A조 @체육관	On-pitch Football B조 @체육관	On-pitch Football C조 @체육관	아동대상 실습(페스티벌) 계획/연습 (조별 진행) @체육관	아동대상 실습(페스티벌) 계획/연습 (조별 진행) @체육관	아동대상 실습(페스티벌) 계획/연습 (조별 진행) @체육관	스포츠를 접목한 평화교육의 평가 *2015 F4P CT 설문조사 (정용철 교수) @강의실 301호	남북출입 사무소 도라산역 캠프 보니파스
15:30~16:00								
16:00~16:30				2015 코치 수료식 @강의실 301호	2015 코치 수료식 @강의실 301호	2015 코치 수료식 @강의실 301호		
16:30~17:00								
17:00~17:30	F4P 코치의 역할 (Graham, Jessica) @강의실 301호			<2급 강사 이상만 참여> F4P 리더십 (Graham) @강의실 301호	<2급 강사 이상만 참여> F4P 리더십 (Graham) @강의실 301호	<2급 강사 이상만 참여> F4P 리더십 (Graham) @강의실 301호		서울대 이동
17:30~18:00								
18:00~18:30				저녁 식사 (코치진, 모든 참가자) @마포소금구이(서울대 후문)	저녁 식사 (코치진, 모든 참가자) @마포소금구이(서울대 후문)	저녁 식사 (코치진, 모든 참가자) @마포소금구이(서울대 후문)		
18:30~19:00								
19:00~19:30				*DMZ 평화투어 가이드:김보근 소장 (한겨레신문 기자)	*DMZ 평화투어 가이드:김보근 소장 (한겨레신문 기자)	*DMZ 평화투어 가이드:김보근 소장 (한겨레신문 기자)		
19:30~20:00								

## (1) 개념 강의 \* 별첨 강의자료 참조

### ① 한반도에서 평화를 생각하다

- 시간: 8월 7일(금) 10:00~11:00
- 강사: 이찬수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주요 내용: F4P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한국적 맥락을 접목시킨 강의
  - 평화 및 폭력의 개념
  - 한반도의 복잡성과 통일운동
  - '평화축구'와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의 개념
  - 한반도의 미래

### ② F4P 철학/목표/가치

- 시간: 8월 7일(금) 11:00~12:00
- 강사: Graham Spacey, Laurence Curtis
- 주요 내용: F4P가 추구하는 철학과 목표,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
  - 철학: (필요한 조건을 적절히 갖춘다면) 스포츠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계를 넘어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간의 상호이해를 높이며 평화감수성을 향상시킴
  - 스포츠를 통해 삶의 기술과 함께 공평, 포용, 존중, 책임감, 신뢰 등 평화 가치들을 가르칠 수 있음
  - 이스라엘,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감비아,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F4P 프로그램을 소개

### ③ 갈등해결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

- 시간: 8월 7일(금) 16:30~18:00
- 강사: Graham Spacey, Claire Rea
- 주요 내용: 스포츠가 분열된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설명
  - 비판적 행동변화 지향적 접근 방법
  - 중동지역, 특히 이스라엘의 유대인/아랍인들의 간의 갈등에서 F4P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설명
  - 스포츠의 비정치성/중립성 강조
  - 북아일랜드 분쟁 당사자의 증언: 북아일랜드 코치인 Claire Rea가 직접 본인이 겪은 사례를 발표

### ④ F4P 코치의 역할

- 시간: 8월 8일(토) 09:00~10:30
- 강사: Graham Spacey, Jessica Foster
- 주요 내용: F4P 코치의 자세 및 프로그램의 특징

- 좋은 교육 세션 및 좋은 코치의 자질
- 좋은 교육 세션: 기획, 조직, 명확한 목표, 적절한 활동, 달성가능한 목표가 고려되어야함
- 좋은 코치의 자질: 기획 및 조직 능력, 스포츠 지식, 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 기술, 현지 맥락에 대한 지식, 인내와 이해력
- 교육 영역: 육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에서의 효과를 설명
- 가르침의 순간(Teachable Moments)에 대한 설명
  - \* 조별 토론 위주로 진행됨

## ⑤ 스포츠와 평화

- 시간: 8월 8일(토) 13:30~14:30
- 강사: 나영일 교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 주요 내용: 스포츠가 평화 정착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다양한 실례를 들어 설명
  - 스포츠와 전쟁
  -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
  - 올림픽과 평화운동
  - 체육시민연대와 스포츠평화운동

## ⑥ 스포츠를 접목한 평화교육의 평가

- 시간: 8월 8일(일) 15:00~16:30
- 강사: 정용철 교수 (서강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 주요 내용: 직접 몸을 움직이며 진행하는 평가 방식 소개. 서로가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진행
  - 'Where are you from': 모든 프로그램의 평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 된다는 것을 설명
  - '다섯 번의 Why': 어떤 사건, 혹은 개념에 대해 다섯 번 '왜'라는 질문을 던짐 으로서 결국 그 것의 core/실체를 드러내는 평가 방식 소개

## (2) 체육 실습

### ① 온피치 풋볼(On-pitch Football)

- 시간: 8월 7일(금) 15:00~16:30, 8월 8일(토) 09:00~11:30
- 강사: 10명의 UK 코치진 등
- 주요 내용: 운동장에서 공 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평화교육 실습. F4P의 4가지 세션 과정(워밍업, 기술단계, 게임 단계, 나눔의 시간) 및 실제 학교, 지역사회 평화교육 프로그램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활동 소개
- 1개의 게임 소개: 엔드존 축구경기(End Zone Football)
  - 경기 규칙: 6명의 팀을 구성. 콘으로 양쪽 끝에 엔드존(득점 구역)을 설치. 4명은 경기에 투입하고 각 팀의 2명씩은 항상 교체선수로 대기시키도록 함. 공을

드리블하여 상대방 엔드존에 들어가면 점수 획득. 드리블이 나리아 공을 차서 엔드존에 넣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음. 마지막에는 엔드존을 없애고 골대와 골키퍼가 있는 경기로 전환

- 목적: 공평과 포용/중립성의 원칙을 알려줌. 축구 기술 중 드리블 기술과 연결시킨 경기. 선수들이 대기선수와 잘 교체해 주는지,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경기에 참여하는지 관찰. 또한, 팀 구성을 아이들에게 직접 맡겨 게임을 한 후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팀이 구성됐는지 얘기하도록 함
- \* 심판이 없이 아이들 스스로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도 가능

## ② 오프피치(Off-pitch)

- 시간: 8월 7일(금) 15:30~15:00, 8월 8일(토) 11:30~12:30
- 강사: 10명의 UK 코치진, Dan Gudgeon F4P Korea 코치
- 주요 내용: 다양한 운동기구, 혹은 맨몸으로 진행되는 게임들이 주를 이룸. 게임에 따라 운동장 이외의 공간(교실 등)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경기도 있음
- 첫날에는 6개의 Circuit 게임(): 6개의 팀을 나눠 지정된 시간 안에 한 게임씩을 습득하도록 하였음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손서에 맡겨 서기



손을 놓지 않고 꼬인손을 풀어 하나의 큰 원 만들기



손을 잡고 훌라후프 통과시키기



눈 가리고 시소 넘어가기



신뢰 게임



협동 게임: 3개 줄로 물병 늘어올리기



## (3) 아동대상 코칭 실습 및 축구페스티벌

### ① 실습 준비

- 첫날부터 3개의 조로 나눠 아동 대상 코칭 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함

### ② 아동대상 코칭 실습

- 시간: 8월 9일(일) 10:00~12:00
- 강사: 트레이닝 참가자들
  - \* 조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 영국 코치진은 트레이닝 참가자들의 코칭을 모니터링 하고 각자의 코칭이 끝나면 따로 불러 코칭에 대한 의견을 줌
- 주요 내용: 3명의 코치가 한 팀이 되어 총 4개로 세션 진행
  - 1세션: 워밍업과 오프피치
  - 2세션: 온피치훈련, 특정 조건을 추가한 게임
  - 3세션: 온피치훈련(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눔, 조건부여)
  - 4세션: 골세러머니 만들기, 페스티벌 규칙 설명, 페스티벌 1차 경기

### ③ 축구페스티벌

- 시간: 8월 10일(일) 13:00~15:00
- 강사: 트레이닝 참가자들
  - \* 트레이닝 참가자들은 6개 팀의 담당 코치, 게임 이후 평화 가치 교육, 스코어 담당, 경기 보조 등으로 활동. 영국 코치진은 트레이닝 참가자들의 코칭을 모니터링하고 각자의 코칭이 끝나면 따로 불러 코칭에 대한 의견을 줌
- 주요 내용: 아이들을 6개의 축구팀으로 만들어 경기 진행
  - 경기가 끝나면 2개의 서로 다른 점수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골득점, 다른 하나는 상대팀이 주는 '페어플레이 점수'임. 두 개를 합산하여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됨
  - 매 경기가 끝나면 팀끼리 모여 상대 점수의 '페어플레이 점수'를 주도록 하였음. 승점은 1점이지만, 페어플레이 점수는 1~5점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음. 점수 계산이 끝나면 함께 모여 왜 그런 점수를 주었는지, 경기를 하면서 모범을 보인 친구의 행동,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서로 얘기하도록 함

### (4) DMZ 평화 투어

- 시간: 8월 10일(월) 08:00~17:30
- 강사: 김보근 기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평화연구소장)
- 주요내용: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후에 우리의 분단현실과 평화에 대한 고민을 직접적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짐.
  - 적군묘: 6.25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과 북한군의 묘가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망자들에 대한 예우로 묘를 관리해옴. 중국군의 유해는 2014년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현재는 북한군 유해만 남아있음.
  - 태풍전망대 : 처음에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2km 지점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설정되었으나, 1968년 북한이 휴전선 가까이 철책을 설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78년에 부분적으로 철책을 설치했음. 태풍전망대는 155마일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유명하며, 그만큼 가까이서 북한지역을 볼 수 있음
  - 해마루촌 : DMZ인근의 민간인 통제구역 마을로, 6.25전쟁 시 버려졌던 곳을 정부가 새롭게 마을로 조성함.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여름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청정지역임. 하늘에서 보면 마을이 '높은음자리'로 되어있음.

- 도라산역 : 민통선 안에 있는 경의선의 최북단 역으로,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역 중 하나이기도 함. 2002년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대통령이 방문해 침묵에 서명함. 이곳에서 평양까지는 불과 205km로, 자동차로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음.

## □ 사업 평가

- 행사 컨셉: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스포츠를 평화교육에 접목한다는 컨셉이 참가자들에게 매우 신선했다는 평가. 한국 사회에 스포츠가 평화 교육에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음
- 참가자: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평화교육자, NGO 활동가, 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했으며 이 중 일부는 프로그램 이후 곧 바로 활동 현장에서 이번에 배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함
- 그러나 이틀간의 실습 강의 이후 바로 어린이 대상 코칭실습을 실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었음. 영국 코치진들도 실습 기간이 최소 하루는 더 늘어나야 함을 지적함
- 파트너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체육교육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모두 각각 평화 부문, 체육 부문, 활동/현장접목 부문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시너지를 냈던 행사였음
-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었음에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됨. 다만, 가장 더운 시기에 진행돼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에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올 해 행사를 시작으로 매 년 평화교육 코치진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함.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평화교육, 특히 스포츠를 접목한 평화교육의 지평을 넓혀나가하고자 함

<첨부 자료 1 - 주요 사진>



<한반도 그리고 평화교육> 이찬수 교수



<F4P의 철학/목표/가치> Graham Spacey 코치



<F4P의 철학/목표/가치> Laurence Curtis 코치



<조편성 및 미팅>



<Off-Pitch / Alternative activities>



<Off-Pitch / Alternative activities>



<Off-Pitch / Alternative activities>



<Off-Pitch / Alternative activities>



<F4P 코치의 역할> Jessica Foster 코치



<On-Pitch>



<On-Pitch>



<On-Pitch>



<On-Pitch>



<스포츠와 평화교육> 나영일 교수



<갈등해결에 있어서 스포츠의 역할> Claire Rea 코치



강의를 듣는 참가자



<페스티벌 기획> Tim Cetinich 코치



<코칭 실습>



<코칭 실습>



즐거워하는 참가 어린이



<평가시간> 정용철 교수



수료식



단체사진



<DMZ투어> 김보근 기자

<첨부 자료 2 - 참가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1	강채영	송산중학교 교사
2	강신균	성남 YMCA 총괄 국장
3	공웅재	(사)어린이어깨동무 팀장
4	김결	일반인(이전 KOICA 소속)
5	김권중	평택 YMCA 국장
6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7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8	김선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 과장
9	김주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교육연수팀 사업보조
10	김현숙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11	김희건	서울대 체교과 재학
12	박나은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13	박범석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14	박세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15	박일수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 사업팀 팀장
16	배정석	부천YMCA 사회교육부 체육팀 팀장
17	손혁준	서울대 사범대 부설초 교사
18	송상훈	태인U&D과장(도시계획), 청춘진보방송사회운동가
19	신사환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들꽃(전)위원장
20	심규호	대학입학 예정
21	양민수	난잔대 종합정책학과 재학
22	오주연	북한대학원대학교 프로젝트 보조연구원
23	이상진	고려대 사회체육학과 재학
24	이승엽	자오나학교 교사
25	이은혜	강동대학교 간호과
26	이종현	메디피스(Medipeace) 전문위원
27	이주봉	한국 YMCA 전국연맹 사회체육국장
28	이준호	한국외대국제스포츠레저학부 /남북체육교류협회인턴
29	이지혜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전문강사
30	이창수	얼라이브 미니스트리 아티스트
31	이호진	수원시학부모봉사단 부단장
32	장 페리에	레스토랑 매니저
33	장한우리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 사업팀 간사

34	전상용	서비스포피스재단/국제협력이사
35	주예진	인수중학교 교사
36	주정숙	수원시학부모봉사단 부단장
37	한길현	고려대 사회체육학과 재학
38	현승민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서부센터 청소년교육팀장
39	홍명근	경실련 통일협회 간사
40	홍인표	대학생
41	정대석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
42	서혜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
43	김혜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석사
44	서명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5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6	이영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7	장근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8	강지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9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50	양두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참가자 50명 중 43명 수료. 참가자 중 90% 이상 출석자에게만 수료증 발급

### <첨부 자료 3 - 트레이닝 참가자 평가 설문 결과>

\* 총 50명의 참가자 중 설문 참가자 42명분 취합

#### 1.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답변

##### 1) 성별 (총 42명)

\*전체 참석자 50명 중 설문 참여자의 의견만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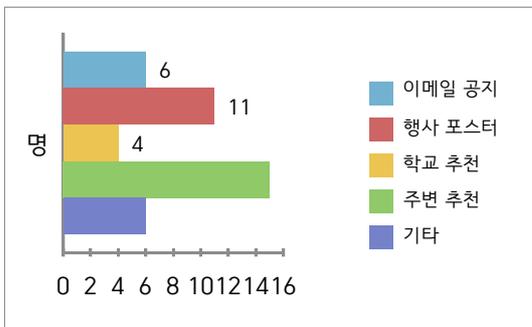


##### 2) 소속

(교사4, NGO/기관20, 대학생/석사10, 연구자1, 기타3, 익명4)



##### 3) 이번 프로그램 알게 된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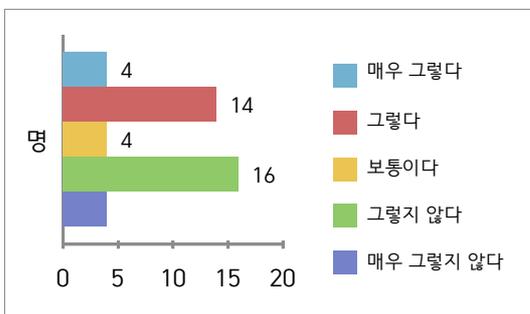


\*기타 : 페이스북/조교로 근무/우리민족 초청/ICUNIA 공지사항  
 \*홍보에 대한 기타 의견 : SNS활용 증진 필요(4명)/체육·봉사관련 중사자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길(2명)/일정 너무 빡빡(2명) 일주일정도 했으면/홍보방법이나 파급력 부족(3명) 포스터에 더 구체적인 설명 필요/아이들과의 실습내용을 미리 고지 받았으면 좋을 듯/

##### 4) 프로그램에 참가한 주된 이유 (중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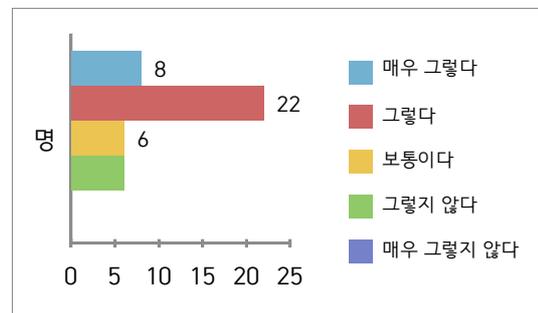
평화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22명
스포츠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16명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이 생소하고 신기해서	13명
주변에서 참가를 권유해서	2명
기타: 조교로 근무/축구는 평화라는 기본적 개념에 공감/남북통일을 위한 "화해, 평화관련 대책"에 대한 궁금/축구를 통한 평화교육에 관심/여성이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드물어서/나 스스로 평화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실천할지 잘 할수 있을지/평화가 무엇인지 그 과정속에서 보고싶어서/참가자들의 유형과 방식을 탐색하고 향후 동일관련 기획에 참고될것같아서/내마음의 평화를 위해	8명

##### 5) 프로그램 진행시기(8월)이 적절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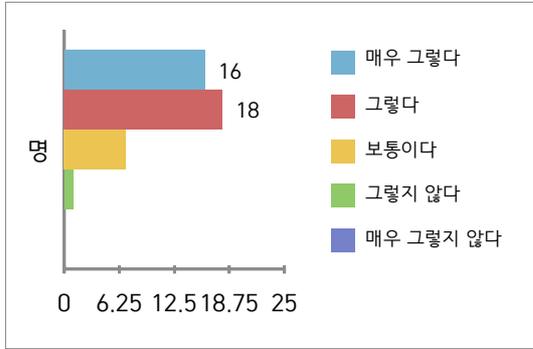
\*그렇지 않은 이유 : 너무 덥다(20명) / 아예 겨울이 나음 / 아동대상 모칭할 때 실내보다 운동장이 좋았을 듯 / 다만 방학을 이용한 시기선정은 좋았음(2명) / 습함. 비.

##### 6) 프로그램 기간과 시간(3일, 9-6시)이 적절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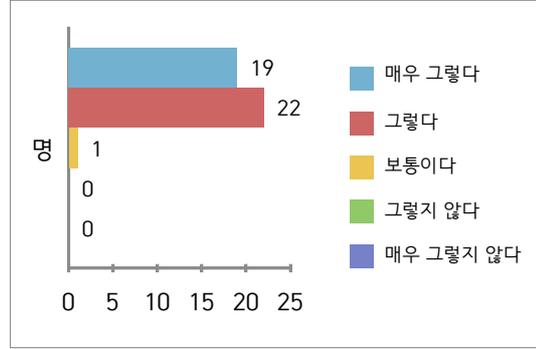
\*그렇지 않은 이유 : 생각보다 긴 시간 / 피로누적으로 2,3일째 힘들 / 애들과 만나자마자 헤어져야 해서 교감하기 어려움. 천천히 변화를 관찰하고 싶음 / 좀더 여유있는 시간구성 필요(2명) / 너무 더웠음 / 원거리자를 고려해서 10시쯤에 시작했으면 함 / 기간이 더 길었으면 함

7) 프로그램의 장소와 시설(서울대)은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은 이유 : 체육관 에어컨 필요(2명) / 체육관, 운동장, 샤워실 시설 모두 좋았음 / 덥고 멀었고 찾기 힘들었음

8) 통역은 매끄러웠는지



\*추가 의견 : 콘텐츠를 영어 원본으로 공급하고 한글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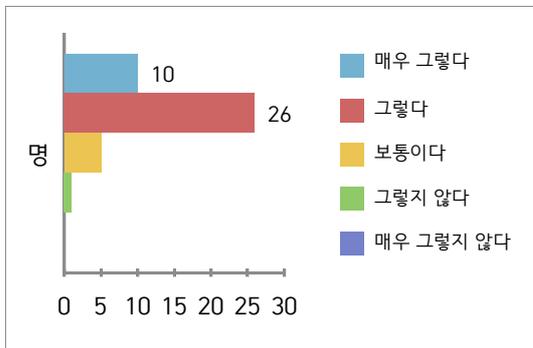
9) 그 외에 행사진행에서의 개선 필요 부분

- \*실습시간이 이어지면 좋겠음. 실습과 강의를 교차로 진행되어 씻기도 애매하고 짹짹했음.
- \*더운 날씨와 관련, AMB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함
- \*시간표 구성이 아쉬움 (쉬는 시간 부족)
- \*진행시 준비, 마무리, 정해진 시간 등이 좀더 체계적이길 바람
- \*외국 코치선생님과 혹은 팀별로 서로 소통하거나 남북관련 NGO 단체 등등 함께 화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함.
- \*좀 더 시원한 물
- \*체육관, 시원한 장소 제공
- \*행사진행 및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임. 추후 동일한 프로그램 열릴 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좋을듯
- \*영국코치들과 하루, 이틀 더 함께하면 좋겠음
- \*좀 더 많이 알려지길

- \*영국인 코치들에게도 제대로 통역해주면 좋겠음. 특히 '평가'시간
- \*평가는 반드시 사전에 설계된 성취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가자들의 이해 수준을 Base line으로 확보해야 함
- \*체육관 냉방, 음료 부족
- \*처음에 전체 참가자들의 인사, 참가 동기 등을 들으면 좋겠음
- \*없음. 많은 분들의 수고로 좋은 교육 받고 감
- \*더위, 축구게임을 제대로 한 판 했으면 좋았겠다
- \*밥!
- \*프로그램 시작 전 스태프의 행사준비 미흡
- \*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학교 "연수 책정제"를 했으면
- \*어린이들이 축구도 그렇지만 가르침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 \*F4P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함
- \*개막식 때 전체사진 촬영, DMZ가는 것 이튿날 정도에 정하기
- \*축구 제대로 배웠으면
-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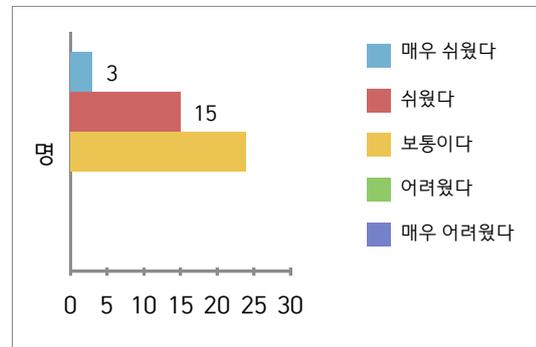
2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답변

10) 자료집이 수업 이해에 도움되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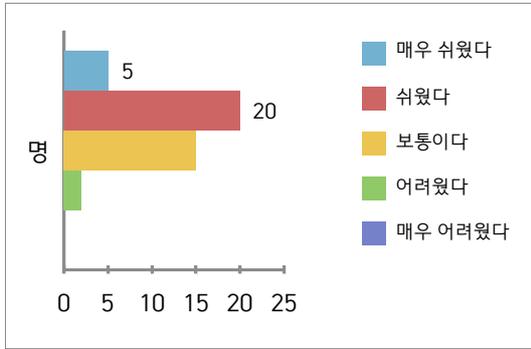
\*그렇지 않은 이유 : 이정도 교육에 자료집이라고 볼 수 없음. 보완 필요  
 \*추가 : PPT가 공유되길. PDF로라도 공유되어 향후 활용 및 효과적인 습득에 도움이 되길 / 그림이 더 있으면 좋겠음

11) 강의실에서 진행된 강의의 난이도



\*구체적인 의견 : 아는 내용

### 12) 체육관에서 진행된 체육실습의 난이도



\*구체적인 의견 : 어렵지만 설명을 잘 해주었음

### 13) 크게 강의실 수업과 체육실습으로 나누었을 때 무엇이 더 어려웠는지

강의실 수업	7명
체육실습	6명
모두 어렵지 않았다	29명
모두 어려웠다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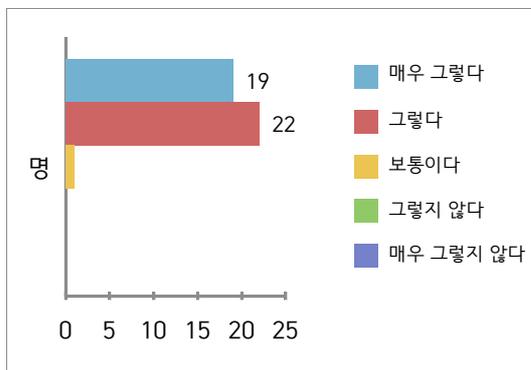
### 14) 그 외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 필요 부분

- \*실습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은 높여도 좋을 듯
- \*체육실습 후 강의실수업을 하니 졸려서 집중하기 힘들었음
- \*스포츠와 평화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더 구성해도 괜찮을듯
-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심화과정이 필요함
- \*기술적 부분에 가치를 담는 내용에 좀 더 많은 시간 할애 필요
-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소개가 더 많았으면 함
- \*첫날 평화교육은 큰 울림을 주었으나, 둘째날 스포츠와 평화교육 수업은 그다지....
- \*다른 스포츠의 예를 추가로 일반화한 교육을 했으면 함
- \*우리도 축구경기를 좀 더 했으면....
- \*집중도 향상을 위해, 실내 체육관 진행시 각 구역 ABC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있으면 좋을 듯
- \*가치를 어떻게 지적할지 추가 설명하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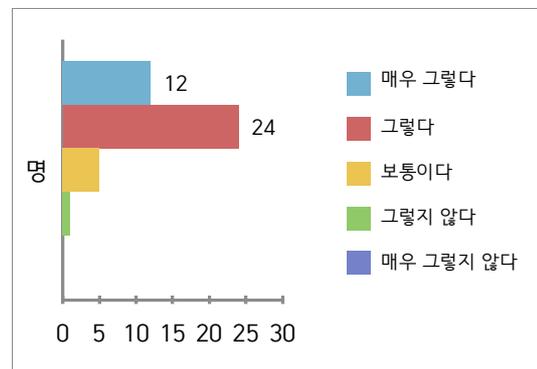
- \*다양한 활동이 연속진행되어 향후 활용시 기억에 남을지 조금 걱정됨. 매뉴얼 참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길 바람
-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짧게나마 교육받고 싶음
- \*모든 프로그램에서 격려와 인센티브는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 조그만 기념품이나 칭찬을 고려하길 바람
- \*영어로 된 교재를 공급할 필요
- \*강의실 수업 중 F4P 수업은 좋았으나 기타는 일반론적임. 강의 안을 자율적으로 보게하지 말고 수업 때 더 활용하면 좋을 듯
- \*페스티벌(경기)시간보다 On, Off-Pitch 실습시간의 비중을 더 늘렸어도 좋았을 듯
- \*개막식에 많은 이들이 축하해주면 더욱 좋겠음
- \*프로그램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 3.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

### 15) 이 프로그램이 추후 활동현장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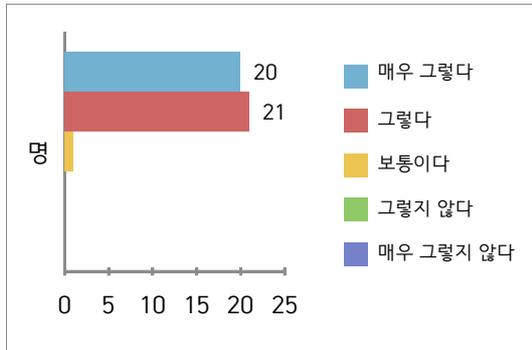


### 16) F4P 프로그램을 활동현장에 적용, 자체적 운영 하거나 자원활동 코치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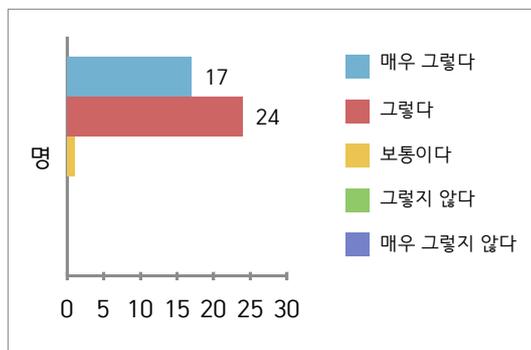


\*그렇지 않은 이유 : 당장 활용가능한 여건은 안됨

17) 내년에 같은 프로그램이 열리면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18) 내년 2급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리면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 4.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답변

19) 참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복 가능)

처음 접해본 생소한 내용	4명
어린이들을 상대하는 것	6명
외국인 코치와의 소통	11명
체력적인 문제	14명
단기간에 내용을 습득해서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것	17명
행사진행의 미흡함	3명
행사장소의 위치	1명
기타 : 더위(2명), 장소, 축구를 잘 모르는 것	4명

20)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별점

★	0명
★★	0명
★★★	2명
★★★★	22명
★★★★★	18명

21) 그 외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프로그램이) 너무 짧다. (2명)
- \*더운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1급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수정 필요
- \*프로그램 내용이 정말 좋음. 널리 퍼져서 아이들에 많이 전파되길!
- \*많은 홍보로 다양한 어린이, 학생들이 페스티벌이 참여할 수 있길
-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가 참 좋았음.
- \*연계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지금의 학습이 계속 발전되길
- \*봄이나 가을에 하면 좋겠음. 너무 더움.
-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고민 필요. 참가자와 진행자 모두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음.
- \*조금 더 다양한 배경,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도했으면
- \*진행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보였으나 더욱 좋아질 것이라 확신함. 헌신하는 모습이 짱!이었음

- \*정말 즐겁고 보람찼다
- \*점심도시락 맛있었음. 열정적이고 친절한 영국 코치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F4P와의 만남이 특별하고 좋았음. 한국에서도 축구를 통한 평화교육의 장이 넓어지길 기원
- \*의미있는 시간과 배움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내년에도 불러주세요 너무 좋아요 ^^ (2명)
-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가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 유익했음
- \*배울 점이 많았고 매우 유익했음
- \*같은 조 말고는 소통할 기회가 없었던 듯. 코치진끼리도 축구를 더 함께했으면. F4P의 가치와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배워감
- \*수료한 사람들에 대한 후속 사업도 잘 해주세용
- \*취지와 협동심이 좋았고, 유대관계 증진됨
- \*축구 한판 합시다
- \*더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왔으면/활동 시작에 'band'같은 걸로 사진 및 활동공유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길

<첨부 자료 4 - 한겨레신문 기사>

남북 어린이를 하나로...‘스포츠 통한 평화교육’ 시동

등록 :2015-08-10 19:06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풋볼포피스 인터내셔널 공인 평화축구 코치 자격 프로그램인 ‘2015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 교육생들 및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영국에서 온 10명의 코치들이 9일 서울대 체육교육과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풋볼포피스 인터내셔널 공인 평화축구 코치 자격 프로그램인 ‘2015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 교육생들 및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영국에서 온 10명의 코치들이 9일 서울대 체육교육과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싱크탱크 광장] 우리민족 ‘평화축구 코치 양성과정’

“이번 축구 페스티벌의 우승팀은 토트넘입니다.”

8월9일 오후 서울대 체육교육과의 체육관. 영국에 본부를 둔 풋볼포피스인터내셔널 (football4peace.eu, 이하 풋볼포피스·F4P)의 팀 세티니츠 코치가 이날 펼쳐진 초등학생 축구대회 우승팀 이름을 부르자 체육관이 떠들썩해졌다. ‘토트넘’ 팀원 7명이 환호하며 앞으로 나간 뒤 자신들만의 멋진 골 세리머니를 재현했다. 그리고 첼시·맨유·리버풀 등 다른 다섯 팀 선수들도 우승한 토트넘 멤버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모두 토트넘팀이 실력뿐 아니라 매너도 최고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축구 페스티벌은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3점을 얻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등 매너가 좋은 팀은 최대 5점까지 받는 ‘평화축구’

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축구 페스티벌은 ‘2015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8월7~9일)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였다. 대표적인 남북 통합 엔지오(NGO)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무총장 강영식, 이하 우리민족)이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원장 박명규), 서울대 체육교육과(학과장 나영일)와 함께 주최한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풋볼포피스 인정 평화축구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다.

2001년 영국에서 출발한 풋볼포피스는 축구교육을 통해 분쟁지역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국제교육기관이다. 출발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들이었다. 테러와 학살이 빈번한 이곳에서 풋볼포피스 코치들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다. 아이들이 스스로 경기 규칙을 만드는 특별한 축구였다. 풋볼포피스 코치들은 또 아이들에게 경기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육 참가자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평화축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워밍업을 비롯해 패스·드리블·헤딩·슛 등 축구의 모든 기술교육에는 게임 요소를 더했다. 아이들은 게임을 즐기면서 축구 기술도 높아갔고, 그러는 사이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배우게 된다. 한 예로 드리블 연습을 보자. 평소라면 손을 잡는 것을 꺼렸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 두명에게 함께 손을 잡게 한 뒤 드리블 연습을 시킨다. 호루라기 신호가 울리면 둘이 상의해서 팔목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로 공을 함께 들어올린다. 아이들은 게임 같은 드리블 연습에 열중하는 사이 스킨십과 함께 협동심을 기르게 된다.

결과는 놀라웠다. 처음에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꺼리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한 뒤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풋볼포피스는 이 교육 방식을 요르단·아일랜드·남아프리카공화국·감비아·독일 등 분쟁지역으로 넓혀 나갔다. 이 중 아일랜드와 독일은 남북한처럼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거나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평화엔지오를 지향하는 우리민족에서는 지난해 분쟁지역에서 강습한 경험이 많은 풋볼포피스의 그레이엄 스페이시 코치 등을 초청해 한반도에서 이 평화축구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 탐색했다. 결론은 긍정적이었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풋볼포피스와 우리민족은 올해 우리민족 중심으로 ‘풋볼포피스 코리아’(F4P Korea)를 구성한 뒤 첫번째 코치 트레이닝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영국의 풋볼포피스 본부에서도 행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북아일랜드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 출신의 클레어 리아를 비롯해 10명의 코치를 파견했다.

올해 코치 트레이닝에는 모두 60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석했다. 대학생에서부터 시민단체활동가·연구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나이도 20대에서 50대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었다. 여성들도 20여명 가까이 참가했다. 코치 트레이닝 참가자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 평화축구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운동장에서 헤딩과 드리블 등 기술교육을 함께 받았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 그대로 먼저 교육받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 초보 코치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드리블 등 배운 기술과 게임을 가르친 뒤 ‘축구 페스티벌’을 진행한 것이다.

코치 트레이닝에 참가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교육연수팀의 김주원씨는 풋볼포피스에 대해 “팀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이라고 평가한 뒤 “더욱이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평화교육을 재미있게 접목할 수 있어 뜻깊다”고 평가했다. 축구 페스티벌에 참가한 김재현(수원 황곡초등학교 6학년)군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는데 축구를 통해 이렇게 빨리 친해진 게 신기하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덕분인지 경쟁만이 아니라 서로 친해질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이예정 우리민족 정책팀 부장은 “앞으로 새터민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프로그램이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전파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그러나 이 평화축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의 어린이가 함께 교육에 참여해 남북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엄혹해질수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축구가 남북 평화 메신저 구실 하길”

### [싱크탱크 광장] 클레어 리아 코치 인터뷰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인들의 통일 염원이 크다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풋볼포피스인터내셔널 코치진 중 특히 클레어 리아(사진) 코치에게 이번 방한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그 또한 유럽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민 북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이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도 남북한처럼 식민과 분단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특히 리아가 태어난 북아일랜드는 신·구교도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했던 곳이다.

‘유럽 분단국’ 북아일랜드 출신

“생각보다 한국인 통일 염원 커”

구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리아는 신교도들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다 축구로



인해 그 벽을 허물게 되었다고 말한다. 북아일랜드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그가 바라는 것은 축구가 남북한에서도 평화의 메신저 구실을 하는 것이다.

-축구를 통해 평화를 교육해오고 있다.

“축구선수로서 신교 쪽 선수들을 접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신·구교가 다른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축구가 없었다면 그런 깨달음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풋볼포피스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했나?

“2012년부터다. 축구 영재교육을 할 것인지, 평화교육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 평화교육 쪽으로 마음을 잡은 뒤다. 북아일랜드에서 주로 평화축구를 가르쳤고, 2013년에는 아프리카 서북쪽 작은 나라 감비아에서도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같은 분단국가 출신으로 한국에서 받은 느낌은?

“남북한은 굉장히 오래 분단돼 있고, 서로 굉장히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왔다. 그런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일하면서 한국인의 통일 염원이 생각보다 크다고 느꼈다.”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에서 아이들에 대한 평화축구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평화축구 교육은 어린아이들에게 정체성과 주인의식, 비판적 사고력 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위 세대들끼리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나쁜 감정이 무비판적으로 전해지기 전에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평화에 대해 사고할 수 있다면 갈등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mailto:tree21@hani.co.kr)

사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공

(원문링크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03843.html>)